

재원환자의 질환군에 따른 가정간호 요구도

한성숙* · 김순례* · 이소영** · 권은하***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만성질환은 지속적인 치료 이행이 어렵고 재원기간이 길며, 퇴원 후에도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다. 이들 장기 질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안으로써 가정간호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가정간호는 입원 후 조기 퇴원환자나 재입원이 요구되는 환자 중 계속적인 치료와 간호 관리가 필요하다고 담당의사 또는 한의사가 인정하는 환자를 가정전문간호사가 방문하여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회복을 도모하고, 장기입원이나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한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입원대체 서비스 제도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0).

가정간호 요구는 개인 또는 가족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정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질병과 장애로부터 회복을 도모하고 개인과 그 가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간호활동에 대한 요구를 의미한다(Lee, 1998). 현재 의료법에 의한 가정전문간호사의 주요 업무는 간호, 검사 관련 업무, 투약 및 주사, 교육, 훈련, 상담, 의뢰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가정간호서비스는 대상자의 질환상태, 일상생활수행능력 정도 등 대상

자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지금까지 가정간호서비스 요구에 대한 연구는 고혈압 환자(Han, 1990), 재가관절염환자(Lim, Kim, Lee, & Lee, 1995), 산모와 신생아(Chang, Choi, Park, Park, & Kim, 1999), 암 환자(Kwon & Eun, 1998), 뇌졸중과 척수손상 환자(So & Song, 2000), 종합병원 퇴원환자(Choi, 2000), 방문간호사업대상자(Lee, 2003), 장기재원환자(Lee, 2005), 뇌혈관질환자(Cho, 2006) 등이 있으나, 연구 대상자의 질병 특성이 단편적이며 가정간호서비스요구에 대한 분류체계가 각각 달라 질환에 따른 가정간호 요구도의 차이를 언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동일한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대상자의 질환별 특성에 따른 가정간호 요구도의 차이를 분석해볼 필요성이 있다. 시범사업 이후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동일한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대상자의 질환별 가정간호 요구도를 살펴보는 것은 가정간호 요구에 적합한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질환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가정간호 서비스에 대한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효과적인 가정간호 사업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2002)에 의해 개발된 「The Home Health Care Need Assessment」에서 의료법에 의한 가정간호의 범위를 토대로 개발한 '간호, 검체의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교신저자 김순례 E-mail: slkim@catholic.ac.kr).

** 가톨릭상지대학 간호과.

*** 동구여자상업고등학교.

투고일: 2006년 12월 12일 심사완료일: 2007년 2월 27일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의 교육 및 훈련, 상담, 그리고 타 보건의료기관에 의뢰' 영역을 기초로 하여 각 질환별 7개 영역의 가정간호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재원환자 질환군에 따른 가정간호서비스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첫째, 조사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며, 둘째, 대상자의 질환군에 따른 기본간호, 임상검사, 투약 및 주사, 치료적 간호, 교육, 상담 및 의뢰 영역에 대한 가정간호서비스 요구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3. 용어의 정의

- 가정간호서비스 요구도: 가정간호는 추후관리를 받아야 할 대상자, 고령자, 만성질환자에게 규격화되어있는 병원에서 수행하던 간호를 가정에서 제공하는 포괄적인 간호로서(Peggy & Nancy, 1980), 본 연구에서의 가정간호서비스 요구도란, 「The Home Health Care Need Assessment」의 7개 영역에 대한 대상자의 요구도를 의미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재원환자의 질환군에 따른 가정간호서비스 요구도 파악을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대상은 의료기관 가정간호 사업기관인 K 병원의 입원환자 129명이었다. 조사방법은 일반병동에서 퇴원 하루 전날 퇴원자 명부를 확보한 후 대상자를 방문하여 연구에 동의한 환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자료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이었다.

3. 연구도구

가정간호 대상자의 가정간호서비스 요구 사정도구는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02)에 의해 개발된 「The Home Health Care Need Assessment」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내용은 일반적 특성과 가정간호사가 수행해야할 7개 서비스 영역의 범주로서 기본간호(16), 검사(13), 투약 및 주사(6), 치료적 간호(40), 교육(26), 상담(6), 의뢰 서비스(10)로 구성된 총 11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대상자들로 하여금 각 서비스 항목에 대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필요 서비스에 대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는 SAS 8.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수치료 현황 및 가정간호서비스 7개 영역 -기본간호, 임상검사, 투약 및 주사, 치료적 간호, 교육, 상담 및 의뢰 서비스-에 대한 가정간호 요구도를 각 질환군에 따른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 129명 중 남성이 45.3%, 여성이 54.7%를 차지하였으며, 연령은 60세 이상이 48.8%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세 이상 55세 미만이 37.2%, 20세 미만 10.1%의 순이었다. 의료보장형태는 96.8%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였으며 수술여부에 대해서는 수술을 받은 환자가 51.7%이었으며 재원기간은 30~59일 사이가 58.2%로 가장 많았다. 질환군은 신생물군이 25.0%로 가장 많았으며, 근골격계질환군 15.6%, 신경계/뇌혈관계질환군 14.1%, 소화기계와 호흡기계 질환군 각각 10.9%의 순이었다(Table 1).

2. 대상자의 영역별 가정간호 서비스 요구도

1) 기본간호

기본간호 서비스 영역의 항목별 요구도의 평균은 문제 확인 및 진단이 77.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활력 증후 측정 49.6%, 섭취량/배설량 조사 20.9%, 체위변경 14.0%, 구강간호 8.5% 순이었다. 항목별 요구도를 살펴보면, 문제 확인과 진단 서비스의 경우 심혈관계/순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29)

Characteristic	Category	n(%)
Gender	Male	58(45.3)
	Female	70(54.7)
Age(year)	<20	13(10.1)
	≥20~<55	48(37.2)
	≥55~<60	5(3.9)
	≥60	63(48.8)
Insurance	Health Insurance	120(96.8)
	Medicare	3(2.4)
	Others	1(0.8)
Operation	Non	57(48.3)
	Operation	61(51.7)
Hospital stay(days)	<30	16(12.4)
	≥30~<60	75(58.2)
	≥60~<90	11(8.5)
	≥90	27(20.9)
Diagnosis	Musculoskeletal disease	20(15.6)
	Neuro/cerebrovascular disease	18(14.1)
	Cardiovascular/circulatory disease	3(2.3)
	Endocrine/metabolic nutritional disease	13(10.2)
	Digestive disease	14(10.9)
	Genito-urinary disease	13(10.2)
	Respiratory disease	14(10.9)
	Neoplasm	32(25.0)
	Pregnancy & labour/postpartum	9(7.0)
	Injury & toxicity	2(1.6)
Others	5(3.9)	

〈Table 2〉 Needs for Fundamental Nursing Services of the Subjects (%)

Need of Service area	Patient's Diagnosis											Total
	MS	NC	CC	EMN	D	GU	R	N	PLP	IT	Others	
Assessment & Dx	35.0	88.9	100.0	61.5	57.1	100.0	85.7	90.6	0.0	100.0	80.0	77.5
T.P.R	10.0	83.3	66.7	30.8	42.9	69.2	50.0	37.5	88.9	100.0	60.0	49.6
I & O check	0.0	5.6	0.0	15.4	0.0	46.2	21.4	40.6	11.1	0.0	60.0	20.9
Position change	15.0	11.1	0.0	0.0	21.4	7.7	14.3	25.0	0.0	0.0	40.0	14.0
Oral care	15.0	0.0	0.0	7.7	7.1	7.7	7.1	15.6	0.0	0.0	0.0	8.5
Breast massage	0.0	0.0	0.0	0.0	0.0	15.4	0.0	3.1	66.7	0.0	0.0	7.0
Back rubbing	5.0	5.6	0.0	0.0	21.4	0.0	7.1	12.5	0.0	0.0	20.0	7.0
Bed bath	5.0	5.6	0.0	0.0	14.3	15.4	7.1	9.4	11.1	0.0	20.0	7.0
Abdominal massages	5.0	5.6	0.0	0.0	7.1	23.1	0.0	12.5	11.1	0.0	0.0	6.2
Hot & cold	10.0	5.6	0.0	0.0	0.0	0.0	0.0	3.1	33.3	0.0	0.0	5.4
Bed shampoo	5.0	5.6	0.0	0.0	14.3	0.0	7.1	3.1	0.0	0.0	20.0	3.9
Eye care	0.0	0.0	0.0	0.0	7.1	0.0	0.0	0.0	0.0	0.0	20.0	1.6
Gismo care	0.0	0.0	0.0	0.0	0.0	7.7	0.0	0.0	11.1	0.0	0.0	1.6
Sand bag	0.0	0.0	0.0	0.0	0.0	7.7	0.0	0.0	0.0	0.0	0.0	0.8
Shaving & cleansing	5.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8

Note. MS: Musculoskeletal disease; NC: Neuro/cerebrovascular disease; CC: Cardiovascular/circulatory disease; EMN: Endocrine/Metabolic/Nutritional disease; Dg: Digestive disease; GU: Genito-urinary disease; R: Respiratory disease; N: Neoplasm; PLP: Pregnancy/Labor/Postpartum; IT: Injury/Toxicity.

환기계, 비뇨생식기계 및 손상 및 중독군의 100%, 신생물군의 90.6%, 신경계/뇌혈관계 및 호흡기계군의 88.9%, 85.7%가 요구도를 갖고 있었다. 활력증상 측정은 손상 및 중독군의 100%, 임신 및 출산/산욕기군의 88.9%, 신경계/뇌혈관계군의 83.3%, 심혈관계/순환기계군의 66.7%가 요구도를 갖고 있었다. 기본간호영역 15개 항목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은 질환군은 신생물군, 비뇨생식기계군, 근골격계군으로 10개 항목에 대한 요구도를 갖고 있었다(Table 2).

2) 임상검사

임상검사 서비스 영역의 항목별 요구도의 평균은 혈액검사가 62.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상처분비물 검사와 소변검사가 각각 26.4%, 직장검사 15.5%, 객담검사와 반정량 혈당검사가 각각 14.0%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각 항목별로는 혈액검사에 대한 요구도는 심혈관계/순환기계군의 100%, 기타 군의 100%, 비뇨생식기계군

의 92.3%, 소화기계군의 85.7%, 신생물군의 81.3%, 호흡기계군의 78.6%가 혈액검사에 대한 요구도를 갖고 있었다. 신생물질환의 경우 임상검사 영역 13개 항목 모두에 대한 요구도가 있었으며 비뇨생식기계군은 배변검사와 기타검사를 제외한 11개 항목에 대한 요구도가 최저 38.5%로 전반적인 요구도가 높았다(Table 3).

3) 투약 및 주사

투약 및 주사 관련 서비스 영역의 항목별 요구도의 평균은 일반수액제제 혈관주사가 40.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항생제 혈관주사 26.4%, 수액 감시 및 관찰 26.4%, 근육주사 23.3%, 마약진통제 혈관주사가 19.4%의 순이었다. 항목별로는 일반수액제제의 혈관주사 요구도는 내분비계/영양대사질환군의 53.9%, 소화기계, 호흡기계 및 신생물군의 각각 50%가 요구도를 갖고 있었다. 질환별로 비뇨생식기계군에서는 투약과 주사에 대한 요구도에서 최하 38.5% 이상의 요구도를 갖고 있었

<Table 3> Needs for Clinical Laboratory Test of the Subjects (%)

Need of Service area	Patient's Diagnosis											Total
	MS	NC	CC	EMN	D	GU	R	N	PLP	IT	Others	
Blood test	15.0	27.8	100.0	76.9	85.7	92.3	78.6	81.3	33.3	50.0	100.0	62.8
Wound culture	0.0	11.1	33.3	30.8	35.7	53.9	35.7	31.3	33.3	0.0	60.0	26.4
Urine test	0.0	22.2	33.3	30.8	35.7	61.5	42.9	21.9	11.1	50.0	80.0	26.4
Rectal exam	0.0	0.0	0.0	0.0	7.1	38.5	0.0	37.5	33.3	0.0	0.0	15.5
1/2 Blood Sugar Test	5.0	0.0	33.3	7.7	0.0	38.5	0.0	28.1	33.3	0.0	0.0	14.0
Sputum culture	5.0	0.0	33.3	23.1	0.0	30.8	50.0	15.6	11.1	0.0	0.0	14.0
Skin test	0.0	5.6	0.0	7.7	0.0	38.5	7.1	18.8	33.3	0.0	0.0	11.6
Urine sugar	0.0	0.0	0.0	7.7	14.3	46.2	0.0	15.6	33.3	0.0	0.0	11.6
Oxymetry	0.0	0.0	33.3	0.0	0.0	38.5	7.1	15.6	33.3	0.0	0.0	10.1
Pelvic exam	0.0	0.0	0.0	0.0	0.0	38.5	0.0	15.6	33.3	0.0	0.0	9.3
Ice water test	0.0	0.0	0.0	0.0	0.0	38.5	0.0	15.6	33.3	0.0	0.0	9.3
Stool exam	0.0	5.6	0.0	0.0	14.3	0.0	0.0	3.1	0.0	50.0	0.0	3.1
Other	0.0	0.0	0.0	0.0	0.0	0.0	0.0	6.3	22.2	0.0	0.0	3.1

<Table 4> Needs for Medication and Injection services of the Subjects (%)

Need of Service area	Patient's Diagnosis											Total
	MS	NC	CC	EMN	D	GU	R	N	PLP	IT	Others	
IV(fluid)	15.0	22.2	33.3	53.9	50.0	46.2	50.0	50.0	33.3	0.0	80.0	40.3
IV(antibiotic)	30.0	11.1	33.3	15.4	14.3	46.2	28.6	34.4	33.3	0.0	40.0	26.4
Fluid monitoring(dropping)	15.0	5.6	33.3	23.1	14.3	46.2	7.1	40.6	44.4	0.0	40.0	26.4
IM	5.0	5.6	33.3	23.1	42.9	38.5	14.3	25.0	33.3	0.0	40.0	23.3
IV(narcotics)	0.0	5.6	33.3	7.7	14.3	46.2	21.4	43.8	33.3	0.0	0.0	19.4
IV(TPN)	0.0	0.0	33.3	15.4	14.3	53.9	7.1	31.3	33.3	0.0	0.0	17.1
SC injection	0.0	5.6	0.0	7.7	0.0	46.2	0.0	34.4	22.2	0.0	0.0	14.7
IV(anti cancer drug)	0.0	0.0	0.0	0.0	7.1	46.2	7.1	31.3	33.3	0.0	0.0	14.0
IV(other)	0.0	0.0	0.0	0.0	0.0	38.5	7.1	15.6	44.4	0.0	20.0	11.6
Ointment & Eye dropping	5.0	0.0	0.0	7.7	0.0	38.5	0.0	18.8	22.2	0.0	0.0	10.9

으며 비뇨생식기계군, 신생물군, 임신 및 출산/산욕기군의 경우는 투약 및 주사 영역 전체 10개 항목에 대한 요구도를 모두 갖고 있었다(Table 4).

4) 치료적 간호

치료적 간호서비스 영역에서 항목별 요구도의 평균은 상처치료가 33.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체도뇨관 교환 및 간호 27.9%, ROM 관절운동 26.4%, 욕창 간호 24.3%, 비위관 교환 및 관리 23.3%의 순이었다. 각 항목별로는 상처치료 항목에서는 근골격계군의 65%,

<Table 5> Needs for Therapeutic Nursing Services of the Subjects (%)

Need of Service area	Patient's Diagnosis											
	MS	NC	CC	EMN	D	GU	R	N	PLP	IT	Others	Total
Wound dressing	65.0	16.7	0.0	15.4	14.3	53.9	14.3	34.4	22.2	0.0	80.0	33.3
Foley catheter exchange & care	15.0	66.7	0.0	15.4	14.3	38.5	7.1	18.8	33.3	100.0	60.0	27.9
ROM exercise	60.0	22.2	33.3	7.7	14.3	46.2	14.3	18.8	22.2	0.0	40.0	26.4
Bedsore care	5.0	16.7	0.0	15.4	21.4	53.9	14.3	31.3	22.2	0.0	60.0	24.3
Nasogastric tube exchange & care	5.0	50.0	33.3	23.1	0.0	38.5	21.4	15.6	33.3	50.0	20.0	23.3
Physiotherapy	40.0	33.3	33.3	15.4	14.3	38.5	0.0	21.9	22.2	0.0	0.0	21.7
Bladder/urethra irrigation	0.0	61.1	0.0	0.0	0.0	38.5	0.0	18.8	33.3	100.0	0.0	20.2
Glycerin enema	0.0	11.1	33.3	0.0	7.1	7.7	14.3	43.8	22.2	0.0	40.0	19.4
Tracheostomy tube care	5.0	33.3	33.3	7.7	0.0	38.5	21.4	18.8	22.2	100.0	20.0	18.6
Walking training	35.0	16.7	33.3	15.4	0.0	38.5	0.0	18.8	11.1	0.0	20.0	18.6
Subclavian vein care	0.0	0.0	0.0	0.0	0.0	38.5	14.3	46.9	33.3	0.0	0.0	17.8
O ₂ therapy	0.0	5.6	0.0	0.0	7.1	38.5	14.3	28.1	22.2	50.0	20.0	17.1
L-tube feeding/insert	0.0	16.6	33.3	15.4	0.0	38.5	21.4	15.6	33.3	0.0	20.0	16.3
Suture remove	25.0	0.0	0.0	7.7	0.0	38.5	14.3	18.8	33.3	0.0	0.0	15.5
Skin care/massage	0.0	0.0	0.0	15.4	14.3	38.5	0.0	25.0	22.2	0.0	20.0	15.5
Drainage	0.0	5.6	33.3	7.7	0.0	46.2	14.3	28.1	33.3	0.0	0.0	14.0
Perineal care	10.0	5.6	0.0	7.7	7.1	23.1	7.1	15.6	56.6	0.0	0.0	13.2
Ostomy/colostomy care	0.0	5.6	0.0	0.0	28.6	38.5	0.0	18.8	22.2	0.0	0.0	12.4
Nelaton catheterization	5.0	5.6	0.0	0.0	0.0	38.5	0.0	18.8	33.3	0.0	20.0	12.4
Auxiliary material care	0.0	0.0	0.0	15.4	7.1	38.5	0.0	18.8	22.2	0.0	0.0	12.4
Occupational therapy	0.0	22.2	33.3	0.0	0.0	30.8	0.0	18.8	22.2	0.0	0.0	11.6
Speech therapy	5.0	22.2	0.0	0.0	0.0	30.8	0.0	15.6	22.2	0.0	0.0	11.6
Postural drainage	0.0	5.6	0.0	0.0	0.0	38.5	7.1	15.6	33.3	0.0	0.0	10.9
Suction	0.0	0.0	0.0	0.0	0.0	38.5	7.1	15.6	22.2	0.0	20.0	10.9
High retention enema	10.0	0.0	0.0	0.0	21.4	38.5	0.0	15.6	22.2	0.0	0.0	10.9
Drainage care	0.0	0.0	33.3	0.0	0.0	38.5	0.0	21.9	22.2	0.0	0.0	10.1
O ₂ tank care	0.0	5.6	0.0	0.0	0.0	38.5	0.0	15.6	33.3	0.0	0.0	10.1
Chest exercise care	0.0	0.0	0.0	0.0	0.0	38.5	7.1	15.6	33.3	0.0	0.0	10.1
Cystostomy care	5.0	0.0	0.0	0.0	0.0	38.5	0.0	18.8	22.2	0.0	0.0	9.3
I & D(<2.5cm)	0.0	0.0	33.3	0.0	0.0	38.5	0.0	18.8	22.2	0.0	0.0	9.3
Remove packing	5.0	0.0	33.3	0.0	0.0	38.5	0.0	18.8	22.2	0.0	0.0	9.3
Care of the cast	0.0	0.0	0.0	0.0	0.0	38.5	0.0	15.6	33.3	0.0	0.0	9.3
Skim graft care(burn)	0.0	0.0	0.0	0.0	0.0	38.5	0.0	15.6	33.3	0.0	0.0	9.3
Breathing exercise	0.0	5.6	0.0	0.0	0.0	38.5	0.0	15.6	22.2	0.0	0.0	9.3
Uterine massage	0.0	0.0	0.0	0.0	0.0	30.8	0.0	6.3	56.6	0.0	0.0	8.5
Neonatal care	0.0	0.0	0.0	0.0	0.0	23.1	0.0	6.3	66.7	0.0	0.0	8.5
Traction care	0.0	0.0	0.0	0.0	0.0	38.5	0.0	15.6	22.2	0.0	0.0	8.5
Gas enema	0.0	0.0	0.0	0.0	0.0	38.5	0.0	15.6	22.2	0.0	0.0	8.5
Chest drainage care	0.0	0.0	0.0	0.0	0.0	38.5	0.0	15.6	22.2	0.0	0.0	8.5
Urination & defecation	5.0	5.6	0.0	0.0	0.0	23.1	0.0	15.6	11.1	0.0	20.0	7.8
S-S enema	0.0	0.0	0.0	0.0	0.0	7.7	0.0	12.5	22.2	0.0	0.0	4.7
Alcohol massage	5.0	0.0	0.0	0.0	0.0	15.4	0.0	6.3	11.1	0.0	0.0	3.1

정체 도뇨관 교환 및 간호요구의 경우 손상 및 중독군 대상자의 100%가 요구도를 갖고 있었다. 방광/요도세척 항목에 대해서는 손상 및 중독군의 100%, 신경계/뇌혈관계군의 61.1%가 요구도를 갖고 있었고, 산소요법의 경우 손상 및 중독 질환군의 50%가 요구도가 있었다. 치료적 간호 42개 항목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많은 질환은 비노생식기계군, 신생물군, 임신 및 출산/산욕기군으로 각각 42개 항목 전체에 대한 요구도를 갖고 있었다(Table 5).

5) 교육

가정전문간호사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항목별 요구도의 평균은 감염증상 판별법교육이 42.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투약방법 교육 41.1%, 식이요법 교육 34.9%, 수액 감시 및 관리법 교육 33.3%, 활동요법 교육이 29.5% 순이었다. 항목별로는 식이교육의 경우, 비노생식기계군의 76.9%, 임신 및 출산/산욕기군의 55.6%를 포함하여 호흡기계군과 손상 및 중독군을 제외한 9개 질환군에서 식이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갖고 있었다. 투약

교육은 손상 및 중독군의 100%, 신경계/뇌혈관계군의 77.8%, 임신 및 출산/산욕기군의 66.7%가 투약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감염 관찰에 대해서는 비노생식기계군의 76.9%, 심혈관계/순환기계군의 66.7%, 반정량 혈당검사 항목에서는 심혈관/순환기계군의 66.75, 비노생식기계군의 53.9%가 요구도를 갖고 있었다. 교육영역 25개 항목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많은 질환군은 비노생식기계군, 임신 및 출산/산욕기군, 신생물군으로서 이들 세군은 25개 항목 모두에 대한 요구도를 갖고 있었다(Table 6).

6) 상담

상담서비스 영역 7개 항목별 요구도의 평균은 환자상태에 대한 전화상담요구가 65.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재입원 상담이 52.7%, 환자상태 직접 상담 51.9%, 응급처치 상담이 46.5%의 순이었다. 항목별로는 환자상태에 대한 전화상담의 경우 순환기계/심혈관계군, 비노생식기계군, 임신 및 출산/산욕기군, 그리고 손상 및 중독군의 100%가 요구도를 갖고 있었다. 환자의 재입원 상

<Table 6> Needs for Educational Services of the Subjects (%)

Need of Service area	Patient's Diagnosis											
	MS	NC	CC	EMN	D	GU	R	N	PLP	IT	Others	Total
Diet	5.0	27.8	33.3	30.8	28.6	76.9	0.0	53.1	55.6	0.0	60.0	34.9
L-tube feeding	5.0	50.0	0.0	23.1	0.0	46.2	14.3	15.6	33.3	50.0	40.0	24.0
Activity therapy	35.0	38.9	0.0	38.5	14.3	38.5	14.3	28.1	22.2	0.0	60.0	29.5
Medication	15.0	77.8	0.0	23.1	7.1	53.9	7.1	46.9	66.7	100.0	40.0	41.1
Infection monitoring	25.0	55.6	66.7	30.8	21.4	76.9	14.3	56.3	33.3	50.0	60.0	42.6
Specific therapeutic instrument care	0.0	5.6	33.3	15.4	0.0	61.5	7.1	28.1	33.3	0.0	0.0	16.3
Complication prevention	10.0	16.7	33.3	7.7	14.3	53.9	0.0	37.5	33.3	0.0	40.0	23.3
Urine sugar test	0.0	0.0	0.0	0.0	0.0	46.2	0.0	15.6	33.3	0.0	0.0	10.1
1/2 Blood sugar test	5.0	5.6	66.7	0.0	0.0	46.2	7.1	28.1	33.3	0.0	0.0	15.5
Insulin self injection	0.0	5.6	66.7	7.7	7.1	53.9	7.1	18.8	33.3	0.0	0.0	14.0
Hypo/Hyperglycemia emergency care	0.0	5.6	66.7	15.4	7.1	53.9	7.1	25.0	33.3	0.0	0.0	15.5
Nelaton catheterization	0.0	5.6	0.0	0.0	0.0	46.2	0.0	18.8	33.3	0.0	0.0	11.6
Bladder exercise	5.0	50.0	0.0	15.4	7.1	53.9	0.0	21.9	33.3	50.0	40.0	22.5
Enema	0.0	27.8	0.0	15.4	28.6	53.9	0.0	28.1	33.3	0.0	0.0	21.7
Urination	5.0	11.1	0.0	0.0	21.4	46.2	0.0	15.6	33.3	0.0	20.0	14.0
Simple wound dressing	30.0	16.7	33.3	7.7	7.1	61.5	7.1	34.4	44.4	0.0	40.0	27.1
Sterilization & aseptic technique	5.0	5.6	33.3	7.7	7.1	69.2	7.1	37.5	33.3	0.0	20.0	20.9
ROM exercise	30.0	38.9	66.7	23.1	0.0	61.5	0.0	25.0	33.3	0.0	40.0	27.1
Bedsore care	15.0	17.8	0.0	23.1	21.4	53.9	7.1	15.6	22.2	50.0	60.0	22.5
Perineal care	15.0	16.7	0.0	15.4	14.3	46.2	0.0	21.9	55.6	0.0	60.0	21.7
Oral care	20.0	27.8	0.0	15.4	7.1	23.1	7.1	15.6	11.1	0.0	20.0	17.8
Personal hygiene	5.0	22.2	0.0	15.4	14.3	69.2	7.1	34.4	33.3	0.0	20.0	23.3
Cold/hot compress	5.0	11.1	0.0	7.7	0.0	15.4	0.0	6.3	11.1	0.0	0.0	7.8
Fluid monitoring(dropping)	5.0	11.1	66.7	15.4	28.6	53.9	21.4	50.0	55.6	0.0	0.0	33.3
O ₂ therapy	5.0	5.6	33.3	0.0	7.1	46.2	50.0	25.0	33.3	50.0	40.0	21.7

담의 경우에는 비노생식기계군의 92.3%, 순환기계/심혈관계군의 66.7%, 환자 직접상담에 대한 요구도는 순환기계/심혈관계군의 100%, 손상 및 중독군의 100%가 요구도를 갖고 있었다. 주수발자 및 가족문제에 대한 상담요구는 손상 및 중독군을 제외한 10개 질환군에서 요구도가 있었다. 신경계/뇌혈관계군, 심혈관계/순환계군, 손상 및 중독군의 경우 환자상태에 대한 전화상담과 환자의 재입원 상담에 대한 요구도가 최하 88.9%로 다른 질환군에 비해 높았다(Table 7).

7) 의뢰

의뢰서비스 영역 10개 항목별 요구도의 평균은 주치의에게 의뢰 요구가 39.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병원 의뢰 38.8%, 타 가정간호기관 의뢰 요구 30.2%의 순이었다. 항목별로 병원의뢰에 대해서는 손상 및 중독군의 100%, 심혈관계/순환기계군의 66.7%, 비노생식기계군의 61.5%가 요구도를 갖고 있었다. 다른 가정간호기관에 의뢰하는 것에 대한 요구도는 신경계/뇌혈관계군의 83.3%, 심혈관계/순환기계군의 66.7%이었고 의뢰 영역 10개 항목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많은 질환군은 비

노생식기계군, 신생물군, 임신 및 출산/산욕기군으로 조사되었다(Table 8).

IV. 논 의

지난 1994년 가정간호사업의 시범사업 실시 후 1997년부터 전국 45개 병원에서 2차 시범사업이 확대 실시되었고 2001년 2월부터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 실시되었다(Jang & Hwang, 2001). 이러한 가정간호사업의 확산은 만성질환자의 증가와 후후관리체계의 필요성, 의료비용 지출부담 등의 의료수요자 측면의 변화와 병상회전율, 의료수가 등 제공자 측면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제한된 의료자원으로 국민에게 적정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최근 초기의 가정간호사업의 비용효과, 건강상태 결과, 가족간호제공사, 그리고 재이용 의사와 만족도 등을 통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Cho & Kim, 2001; Lim et al., 1995; Rho, Jung, & Kang, 2001), 장기적 간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경

<Table 7> Needs for Counseling Services of the Subjects (%)

Need of Service area	Patient's Diagnosis											Total
	MS	NC	CC	EMN	D	GU	R	N	PLP	IT	Others	
Telephone counseling about pt's condition	25.0	88.9	100.0	38.5	57.1	100.0	64.3	75.0	100.0	100.0	40.0	65.9
Counseling about pt's re-admission	25.0	44.4	66.7	53.9	35.7	92.3	50.0	62.5	33.3	50.0	80.0	52.7
Counseling about pt's direct care	50.0	88.9	100.0	30.8	35.7	92.3	35.7	43.8	33.3	100.0	60.0	51.9
Counseling about emergency care	20.0	16.7	66.7	46.2	50.0	76.9	64.3	65.6	33.3	0.0	80.0	46.5
Counseling about Care giver & family	15.0	33.3	33.3	38.5	57.1	53.9	28.6	43.8	33.3	0.0	100.0	38.8
Counseling about hospice	10.0	5.6	33.3	23.1	21.4	46.2	28.6	50.0	33.3	0.0	60.0	29.5
Counseling about environments	5.0	22.2	66.7	23.1	21.4	61.5	14.3	34.4	33.3	0.0	40.0	24.8

<Table 8> Needs for Reference Services of the Subjects (%)

Need of Service area	Patient's Diagnosis											Total
	MS	NC	CC	EMN	D	GU	R	N	PLP	IT	Others	
Refer to physician	25.0	5.6	66.7	30.8	64.3	61.5	64.3	40.6	33.3	0.0	80.0	39.5
Refer to hospital	20.0	22.2	66.7	30.8	35.7	61.5	35.7	53.1	33.3	100.0	60.0	38.8
Refer to other home care agency	5.0	83.3	66.7	0.0	0.0	46.2	14.3	43.8	33.3	0.0	20.0	30.2
Refer to hospice	5.0	5.6	0.0	23.1	14.3	46.2	14.3	53.1	33.3	0.0	20.0	24.0
Maternal supply	10.0	5.6	0.0	30.8	21.4	38.5	35.7	18.8	33.3	0.0	40.0	18.6
Refer to other agency	10.0	5.6	33.3	30.8	14.3	46.2	15.4	21.9	33.3	0.0	0.0	17.2
Refer to health center	5.0	0.0	0.0	0.0	0.0	38.5	7.1	18.8	33.3	0.0	0.0	10.9
Refer to social & welfare center	0.0	0.0	0.0	0.0	0.0	23.1	0.0	12.5	11.1	0.0	0.0	5.4
Refer to day care center	0.0	0.0	0.0	0.0	0.0	23.1	0.0	9.4	11.1	0.0	0.0	4.7
Refer to mobile bath center	5.0	5.6	0.0	0.0	14.3	7.7	0.0	3.1	11.1	0.0	0.0	3.1

우 비용 효과적이고 가족 주간호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보고도 있으나(Chui, Shyu, & Liu, 2001), 몇몇 연구들에서는 가족의 노력을 계산한다면 가정간호가 훨씬 비쌀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Jacob & McDermott, 1989; Stommel & Given, 1993). 또한 가정간호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에도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일관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Kim et al., 2000), 실제 제공되고 있는 가정간호서비스의 내용이 대상자의 요구도에 적합하고 일치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밝혀진 바가 없다.

본 연구 결과, 기본간호서비스 영역에서는 문제 확인과 진단, 활력징후 측정 및 혈액검사요구가 다른 요구들에 비해 높았다. 항목별로는 문제 확인과 진단 서비스에 대한 항목의 경우 심혈관계/순환기계, 비노생식기계 및 손상 및 중독군의 100%를 포함하여 신생물군, 신경계/뇌혈관계군, 호흡기계군 등 6개 질환군에서 문제 확인 및 진단서비스에 대해 85% 이상의 높은 요구도를 갖고 있었다. 활력증상 측정요구도의 경우에도 손상 및 중독군 대상자의 100%를 포함하여 임신 및 출산/산욕기군, 신경계/뇌혈관계군, 심혈관계/순환기계군 등 4개 질환군에서 65% 이상의 요구도를 갖고 있었다. 동일한 분류체계를 이용하지는 않았으나 암환자의 가정간호 요구도를 조사한 Kwon과 Eun(1998)의 연구에서는 신체적 요구로서 개인위생에 대한 요구가 교육에 대한 요구 다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뇌·척수손상 환자의 가정간호 요구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동통 및 불편감, 성생활, 이동, 영양, 배변, 피부, 수면, 배뇨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Joung, 1996). 본 연구는 암 이외의 다른 질환군이 포함된 연구로 연구도구와 대상자가 일치하지는 않으나, 만성질환자라는 공통점을 갖고 접근할 때 개인위생에 대한 요구는 전반적인 가정간호서비스 수혜자들이 갖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개 종합병원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Choi(2000)의 연구결과에서 기본간호 요구도가 가장 높았는데 본 연구결과 6개 질환군 이상의 대상자들이 기본간호 영역에 대한 요구도가 있었던 점은 Choi(2000)의 연구를 지지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임상검사 영역의 요구도는 혈액검사가 62.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상처분비물 검사와 소변검사, 직장검사의 순이었다. 항목별로 혈액검사에 대한 요구도는 심혈관계/순환기계군 100%, 기타 군 100%를 포함한 총 6개 질환군에서 최하 78% 이상의

요구도를 갖고 있었으며 신생물군의 경우 임상검사 영역 13개 항목 모두에 대한 요구도를 갖고 있었다. 장기 재원환자의 가정간호 요구도를 조사한 Lee(2005)의 연구에서는 치료적 간호, 교육 및 상담, 기본간호, 투약 및 주사, 검사의뢰로 조사되어 검사에 대한 요구도는 다른 요구에 비해 낮았고 진료과에 따라 검사의뢰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Lee(2005)의 2문항을 통해 진료과목에 따른 검사의뢰를 조사한 것이고 본 연구는 13개 각각의 검사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였기에 직접 비교할 수 없으나 본 연구에서 질환별 요구도의 차이를 분석하지 못했다. 추후연구에서 질환별 각 영역 요구도의 차이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세 번째 영역인 투약 및 주사 관련 요구도는 일반수액 제제 혈관주사에 대한 요구도가 40.3%로 가장 높았고 질환별로는 비노생식기계군은 최하 38.5% 이상의 요구도를 갖고 있었으며 비노생식기계군, 신생물군, 임신 및 출산/산욕기군은 전체 10개 항목에 대한 요구도를 갖고 있었다.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 기술적인 간호요구에 비해서 교육, 상담 등의 지지적인 항목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고 보고되었지만, 세부 항목에서는 혈관주사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는데(Lee, Lee, Lee, & Sohn, 1999), 본 연구와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가정간호 대상자들에게 투약에 대한 요구도 적지 않음을 확인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비노생식기계 질환과 임신 및 출산/산욕기군의 경우 다른 질환군에 비해 혈관주사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것은 질환 자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적인 체력소모와 에너지 섭취에 대한 기대 및 혈관주사에 대한 심리적인 기대 등의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등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신중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네 번째 영역인 치료적 간호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는 상처치료가 33.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정체도뇨관 교환 및 간호, ROM 관절운동, 욕창간호의 순이었다. 정체 도뇨관 교환 및 간호요구의 경우 손상 및 중독군의 100%, 방광/요도세척 항목에 대해서는 손상 및 중독군의 100%가 요구도를 갖고 있었고 비노생식기계군, 신생물군, 임신 및 출산/산욕기군은 각각 42개 항목 전체에 대한 요구도를 갖고 있었다. 한편, 암환자의 가정간호 요구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기술적인 간호 보다는 투약교육, 운동교육, 환자상태관리 등의 지지적 간호활동에 대한 요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Kim, 1989:

Kwon & Eun, 1998), 교육 및 상담영역에 대한 이러한 요구도는 가정간호 대상자의 질환과 주간호자의 역할에 따라 가정간호 서비스 내용 자체에 차이가 있으며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등의 변인 등 환경적인 영향 등이 작용했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하나 본 연구결과는 이들 선행연구를 지지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영역인 가정전문간호사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는 감염증상 판별법교육이 42.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투약방법, 식이요법, 수액 감시 및 관리법의 순이었다. 식이교육의 경우, 호흡기계군과 손상 및 중독군 대상자를 제외한 9개 질환군에서, 투약교육은 손상 및 중독군 100%를 포함하여 신경계/뇌혈관계군의 77.8%, 임신 및 출산/산욕기군의 66.7%가 요구도를 갖고 있었다. 이는 의료환경이 수요자 중심으로 변하면서 자가간호를 포함한 대상자의 치료과정 참여와 주간호자 및 가족의 참여기회 증가 등 다양한 환경적 영향들이 직·간접적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켰을 것으로 추측되며, 향후 고객 맞춤형 가정간호서비스 개발 시 이러한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도를 고려해 접근한다면 사업의 효과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영역인 상담서비스 영역 7개 항목별 요구도는 환자상태에 대한 전화상담요구, 재입원 상담, 환자상태 직접 상담, 응급처치 상담의 순이었고 손상 및 중독군을 제외한 10개 질환군에서 주수발자 및 가족문제에 대한 상담요구를 갖고 있었다. 질환별로는 신경계/뇌혈관계군, 심혈관계/순환계군, 손상 및 중독군의 경우 환자상태에 대한 전화상담과 환자의 재입원 상담에 대한 요구도가 최하 88.9%로 다른 질환군에 비해 높았다. 이러한 교육 및 상담에 대한 요구도는 대상자들에게 중요한 요구로 지적되고 있으며 그 중 질병의 예후에 대한 정보요구와 정서적 지지, 투약 교육 및 환자상태관리 등에 대한 요구들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항이다(Kwon & Eun, 1998; Min, 1997; So & Song, 2000).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의 높은 교육 요구도를 지지해주는 것으로서 가정간호서비스의 특성상 가족 및 주간호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교육 요구도에 부합한 서비스 제공 및 평가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 일곱 번째 영역인 의뢰서비스 영역에 대한 요구도는 주치의 의뢰, 병원 의뢰, 타 가정간호기관 의뢰의 순이었다. 손상 및 중독군의 100%, 심혈관계/순환계군의 66.7%, 비노생식기계군의 61.5%가 병원 의뢰 요구도를, 신경계/뇌혈관계군의 83.3%, 심혈관계/순환기

계군의 66.7%는 다른 가정간호기관 의뢰에 대한 요구도를 갖고 있었다. 의뢰에 대한 요구도는 대상자의 건강 상태 변화에 기인하는 경우 이외에도 가정간호 서비스 및 기관에 대한 신뢰정도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가정간호 사업의 효과성 평가를 통해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지난 2002년 전국 의료기관 가정간호서비스의 제공 수준을 평가한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의 보고서에 의하면, 활력징후 측정, 문제 확인과 진단, 섭취량/배설량 조사에 대한 평가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압박지혈법, 유방간호, 침상목욕, 면도 및 세척 등 비전문 간호 보조 인력의 지원이 필요한 영역은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한 수준으로 평가된 바 있다. 또한, 치료적 가정간호서비스 제공에 대한 평가에서도 정제 도노판 교환 및 삽입, 단순 드레싱, 비위관 교환 및 관리, 욕창 간호 등은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판장, 산소탱크 사용, 절개 및 배농간호, 견인부 간호,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은 대상자의 요구도 충족이 미흡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병원 입원환자들이 요구한 가정간호서비스와 실제로 가정간호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들이 평가한 서비스 내용이 부분적으로는 일치하나 완전히 부합되지는 않고 있음을 지적해주는 것으로서, 요구도 충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영역들은 보조 인력의 도움과 타 전문영역과의 협조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가정간호서비스 내용으로 생각된다. 향후 가정간호요구를 측정하는 표준화된 도구를 적용하여 질환별로 대상자 수를 늘린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나이가 요구도에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으로 가정간호 실무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소재 일개 대학부속병원 입원환자 129명을 대상으로 가정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질환군에 따른 가정간호 서비스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대상자는 남성 45.3%, 여성 54.7%, 60세 이상군 48.8%, 20~54세군 37.2%이었으며, 질환군 분포는 신생물 25.0%, 근골격계질환 15.6%, 신경계/뇌혈관계질환 14.1%의 순이었다.
2. 기본간호 영역에 대한 요구도는 문제 확인 및 진단이

77.5%로 가장 높았으며, 활력징후 측정 49.6%, 섭취량/배설량 조사 20.9%의 순이었다. 심혈관계/순환기계, 비뇨생식기계, 손상 및 중독군은 문제 확인 및 진단요구가 100%, 손상 및 중독군의 경우 활력증후 측정요구가 100%로 높았다.

3. 임상검사 영역은 혈액검사 62.8%, 소변검사, 26.4%, 상처분비물검사 26.4%의 순이었다. 신생물군의 경우 13개 임상검사 항목 모두에 대한 요구도를 갖고 있었으며 비뇨생식기계군은 배변검사와 기타 검사를 제외한 11개 항목에 대한 요구도가 최저 38.5%로 전반적인 요구도가 높았다.
4. 투약 및 주사 영역은 일반수액제제 혈관주사요구가 40.3%, 항생제 혈관주사, 수액감시 및 관찰이 각각 26.4%, 근육주사 23.3% 순이었다.
5. 치료적 간호 영역은 상처치료가 33.3%, 관절운동 26.4%, 정체 도뇨관 교환 및 간호 27.9%, 욕창간호 24.3%, 비위관 교환 및 관리 23.3%이었다. 정체 도뇨관 교환 및 간호, 방광/요도세척, 기관지 절개관 교환 간호는 손상 및 중독군의 100%가 요구도를 갖고 있었다. 비뇨생식기계, 신생물군, 임신 및 출산/산욕기 군은 42개 항목 전체에 대한 요구도를 갖고 있었다.
6. 교육요구는 감염증상 판별법이 42.6%, 투약방법 41.4%, 식이요법 34.9%, 수액감시 및 관리법 33.3%의 순이었다. 식이교육은 비뇨생식기계 질환군의 76.9%, 임신 및 출산/산욕기 군 대상자의 55.6%를 포함하여 호흡기계군과 손상 및 중독군 대상자를 제외한 9개 질환군에서 식이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갖고 있었으며 손상 및 중독군은 100%가 투약방법 교육 요구도를 갖고 있었다.
7. 상담 서비스 요구는 환자상태에 대한 전화 상담, 재입원 상담, 환자상태 직접상담, 환자상태 변화 시 응급처치 상담이 순으로 높았다. 심혈관계/순환기계군과 손상 및 중독군의 환자상태 직접 및 전화상담 요구가 100%, 비뇨생식기계, 임신 및 출산/산욕기군의 환자상태 전화상담이 100%, 기타군의 주수발자 및 가족문제 상담이 100%이었다.
8. 의뢰서비스는 주치의에 의뢰가 39.5%, 병원의뢰 38.8%, 타 가정간호 실시기관 의뢰가 30.2%이었으며, 손상 및 중독군에서는 병원의뢰 요구가 100%, 신경계/뇌혈관계군의 타 가정간호기관 의뢰 요구가 83.3%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재원환자의 가정간호서비스 요구도는 질환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수를 늘린 추후 연구에서 가정간호서비스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관련변인 분석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 Chang, S. B., Choi, Y. S., Park, S. M., Park, J. S., & Kim, E. S. (1999). Home care needs of parturient women and neonates-retrospective study. *J Korean Acad Nurs*, 29(3), 507-517.
- Chiu, L. S., Shyu, W. C., & Liu, Y. H. (2001). Comparisons of the cost-effectiveness among hospital chronic care, nursing home placement, home nursing care and family care for severe stroke patients. *J Adv Nurs*, 33(3), 380-386.
- Cho, K. H. (2006). *A families burden on a cerebrovascular accident patient and the demand for nursing hom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Cho, W. J., & Kim, M. J. (2001). Analysis of cost reduction for women with a caesarean section receiving home care. *J Nurs Query*, 10(1), 68-88.
- Choi, H. Y. (2000). *A study on post-hospital home health care needs in a general hospital*.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 Han, Y. H. (1990). *A study on the need of home nursing care for hyperten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Jacobs, P., & McDermott, S. (1989). Family caregiver costs of chronically ill and handicapped children: Method and literature review. *Public Health Rep*, 104, 158-167.
- Jang, I. S., & Hwang, N. M. (2001). Analysis of services and cost in CVA patients by severity in hospital-based home health care. *J Korean Acad Nurs*, 31(4), 619-630.

- Joung, J. Y. (1996). *A study on assess the characteristics of disease, self-care ability of client for home health care-C.V.A., head & spinal cord injury inpati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 Kim, C. N., Kwan, Y., S., Koh, H. J., Kim, M. A., Park, C. J., Shin, Y. H., Lee, B. S., & Lee, K. H. (2000). A study on hospital based home health care service and the level of client satisfaction. *J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14(2), 246-259.
- Kim, J. S. (1989). *A study on the expressed desire at discharge of patients with cancer to use home nursing service and affecting factors of the desi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02). *Development of tools and evaluation system for quality improvement of hospital based home health care*.
- Kwon, I. S., & Eun, Y. (1998). Nurse's perception in the home care needs of cancer patient. *J Korean Acad Nurs*, 28(3), 602-613.
- Lee, J. H., Lee, Y. E., Lee, M. H., & Sohn, S. K. (1999). A Study on the expressed desire at discharge of patients to use home nursing and affecting factors of the desire. *Korean Acad Soc Rehab Nurs*, 2(2) 257-270.
- Lee, K. E. (2003). *Need assessment in home health nursing care for clients of visiting nursing servic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K. O. (1998) A study on the activities of daily living, quality of life and homecare needs of the elderly in home. *Nurs Sci* 10(2) 73-82.
- Lee, Y. H. (2005).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long stay hospital patient and home health care need*.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Lim, N. Y., Kim, S. Y., Lee, E. O., & Lee, I. S. (1995). Effects of hospital-based home care for the patients with arthritis. *J Rheumatol Health* 2(2) 185-196.
- Min, T. J. (1997) *Cognition and need of patients for home health ca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Busan.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0). *A hand book of hospital based home health services for home care nurses*. Seoul: Leemoon Co.
- Peggy, C. F., & Nancy, P. J. (1980). *Nursing theories: The base for professional nursing practice*. New Jersey: Prentice Hall,
- Rho, M. H., Jung, K. S., & Kang, J. Y. (2001). Effectiveness of home care nursing in stroke rehabilitation. *Kimcheon Science J Acad*, 27, 83-89.
- So, H. Y., & Song A. R. (2000). A survey on home health care(HHC) needs of cerebrovascular accident and spinal cord injury clients. *Chungnam J Nurs Acad*, 3(1), 49-57.
- Stommel, M., Civen, C. W., & Given, B. A. (1993). The costs of cancer home care to families. *Cancer*, 71, 1876-1884.

- Abstract -

Needs of Home Care Nursing Services for Hospital Patients

Han, Sung Suk* · Kim, Soon Lae**
Lee, So Young*** · Kwon, Eun-H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needs of home care nursing services in relation to the patients in hospital.
Method: Subjects were 129 patients who admitted hospital and were selected through convenience sampling. Data were collected using

* College of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Sangji College.

*** Dongu Girl's High School.

the Home Health Care Need Assessment Questionnaire constructed by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Data were analyzed using SAS 8.12 program by applying percentage. **Results:** 1. According to the diagnosis of the subjects, the majority had cancer (25.0%), followed by musculoskeletal disease (15,6%), neuro/cerebral vascular disease (14.1%), digestive (10.9%) and respiratory disease (10.9%). 2. With regard to fundamental nursing service, subjects wanted to receive home care services for the following reasons: Problem identification and diagnosis (77.5%), vital sign check (49.6%); and intake and output measure (20.9%). 3. With regard to clinical laboratory tests, 62.8% wanted to receive blood tests, and followed by urine tests 26.4%, and wound drainage 26.4%. 4. With regard to medication and treatment service, 40.3% of the subjects wanted to receive intravenous fluid therapy, 26.4% intravenous antibiotics, and 26.4% the monitoring of fluid therapy. 5. With regard to

therapeutic nursing service, 33.3% wanted to receive wound care, 26.4% ROM exercise, and 27.9% foley catheter change and care. 6. With regard to educational needs, 42.6% wanted education on infection monitoring, 41.4% on medication, and 34.9% on diet. 7. With regard to counseling needs, 65.9% wanted to receive telephone counseling about patient condition, 52.7% counseling about re-admission and 51.9% direct counseling about patient condition. In the group of injury and toxicity, and cardiovascular/circulatory diseases, 100% wanted telephone and direct counseling about the patient condition. **Conclusion:**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hospital based home health care services, various factors that affect to the need of home health care should be analyzed and specified nursing care should be looked into.

Key words : Home Care, Patients